

# 세월이 가도 툭툭 튀어... 그는 여전히 신세대다

특유의 빠른 대사 처리와 개성적인 외모 한몫  
예능 '윤식당' 시리즈 통해 친근한 이미지도  
"연기 장인 없다...오래 한다고 잘하는 것 아냐"

"내가 한창 젊은 시절은 예뻐야 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만 안이다."

배우 윤여정(74)은 2018년 1월 스포츠동아 인터뷰  
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쁘지 않아 "좀 다르게 해야 했  
다"는 그는 "타고난 게 없어 열심히 연습했다"고 덧붙  
였다.

TBC 텔런트 공채 시험에 합격하면서 무대에 처음 오  
른 1966년 이후 55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는 그가 최  
근 세계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최근작인 미국영화 '미나  
리'로 27일 현재까지 현지 20개 영화상의 여우조연상을  
받은 덕분이다. 이 같은 성과로 그의 연기 인생도 새삼  
세상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미 1971년 영화  
'화녀'로 스페인 시체스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여  
우조연상을 거머쥔 만큼 재능 있는 배우였다.

### ● "툭툭 튀는 이미지의 신세대"

윤여정은 한양대 국문과 1학년에서 재학 중 연기자  
가 됐다. 1년 만인 1967년 드라마 '미스터 꿈'으로 일약  
'브라운관'의 주역이 된 그는 세련된 외모와 이미지로  
시청자에 각인됐다. 영화전공자 이호걸 씨는 '여성영  
화인사전'에서 "특유의 빠른 대사와 개성적인 외모"로  
"신세대 젊은 여성의 톱툭 튀는 이미지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윤여정은 안방극장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캐릭터  
의 하나로 남은 최초의 '장희빈'이었다. 1970년 TBC 전속  
계약이 끝나자마자 MBC로 '스카우트'되면서 두 방송  
사가 그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일 만큼 명성을 굳힌 뒤



영화 '미나리'로 4월 아카데미상을 노리는 배우 윤여정은 1971년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화녀'로 스페인 시체스국제판타스틱 여  
우조연상을 품어 안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에서 초청작 '미나리'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여정.  
사진제공 |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였다. 그해 3월 조영남과 MBC 라디오 '청춘만세'를 함  
께 진행하기도 한 그는 '장희빈' 포스터가 찢겨지고  
"대중목욕탕에서 '나쁜 X'이라는 욕설과 뜨거운 물세  
레"(경향신문 1993년 12월2일자)를 받을 정도로 시청  
자 비난 속에 인기를 끌었다. 1971년이었다.

그해 윤여정은 김기영 감독의 '화녀'로 스크린 데뷔  
했다. 남자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지닌 가정부로 등장  
한 윤여정은 데뷔작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과 대  
종상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당시 청룡영화상 심사위원  
선우휘 작가는 "윤여정의 발전 여부가 앞으로 우리 영  
화의 질적 향상을 가름하는 표본이 될 것이다"고 호평  
했다.(조선일보 1971년 3월7일자)

### ● "연기의 장인"을 꿈꾸며

그 사이 극단 산울림 소속으로 '꽃피는 체리' 등 연  
극무대에서도 기량을 발휘했다. 하지만 1973년 조영  
남과 미국으로 떠나 이듬해 결혼한 그는 한동안 카메  
라에서 벗어났다. 1982년 귀국, 2년 뒤 10월 MBC '베  
스트셀러극장-고깔' 편으로 복귀한 그는 1995년 4월 S  
BS 아침드라마 '그대목소리'로 처음 노인 역을 연기했  
다. 이후 현재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스크린의 또 다  
른 주역으로 나서며 한국영화의 영역을 넓혀놓았다.

윤여정은 "연기를 오래 한다고 잘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장인이 아니라 기술자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연기에는 장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시 연기를 시작하면서 내 목소리가 들리더라. 어떻  
게 해야 할지 몰랐다"며 "미치겠다"고 지난 시간을  
돌이키는 그의 말에서 새롭게 꾸어가는 꿈의 한 단면  
이 배어났다. 예능프로그램 '윤식당' 시리즈에 이어 최  
근 '윤스테이'로 시청자와 친근감을 쌓아가는 것도 그  
의 꿈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보로 일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박신혜 이다희

## '철의 여인' 박신혜-이다희 안방 컴백 tvN '루카' 등 2월 액션극서 걸 크리시 매력

연기자 박신혜와 이다희가 '철의 여인'이 되어 2월 안  
방극장을 물들인다. 이들은 각각 JTBC '시지프스:더 미  
쓰'와 tvN '루카:더 비기닝'을 통해 강인한 면모를 뽐낸  
다. 저마다 다른 개성의 '걸 크리시' 매력을 비교하는 재  
미까지 선사한다.

박신혜는 2월17일부터 방송하는 '시지프스'에서 세상  
을 구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전투요원 역을 맡는다. 현  
재를 사는 천재공학자 조승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 무술에 능한 남성이 여성을 지키는 진부한 설정을  
완벽하게 비틀어 신선함을 자아낸다.

이를 통해 2003년 데뷔 이후 안방극장에서 처음으로  
액션 장르에 도전한다. 장총과 권총 등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건 예사다. 전투복을 입은 채 와이이어를 타고 수  
많은 상대와 맞서고, 유리창을 온몸으로 깨고 나가 건물  
사이를 뛰어다닌다.

작년 봄부터 액션 연기를 익히는 데 몰두했다. "본능  
적인 감각으로 싸움을 해나가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서다.

이다희는 '팬텀 액션'을 내세운다. 다음달 1일부터 선  
보이는 '루카:더 비기닝'에서 강력계 형사를 연기한다.  
드라마는 초능력을 가진 채 기억을 잃은 김래원과 그를  
뒤쫓는 공작원 김성오가 벌이는 추격전을 담는다. 이다  
희는 김래원의 초능력을 알고, 그를 둘러싼 음모를 집요  
하게 파헤치면서 이야기의 중심을 잡는다.

176cm에 달하는 큰 키를 활용해 시원스러운 액션 연  
기를 펼친다. 27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액션 보는  
맛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매사에 적극  
적이고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을 바탕 삼아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함께  
호흡을 맞춘 김래원도 "다치기도 많이 다쳤을 텐데 티를  
내지 않고 열정을 다해 연기해 놀랐다"며 박수를 보냈  
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영화 '미나리', 내달 12일 미국서 개봉 2월 골든글로브·4월 아카데미 정조준

'미나리'가 본격적으로 세계 영화계에 뿌리를 내릴 기  
세다.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해외 개봉 일정을 속속  
확정하며 무대를 넓히는 한편 2월 골든글로브와 4월 아  
카데미상 시상식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윤여정·한예리·스티븐 연 등이 출연하고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미나리'는 2월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18일 호주에서 정식 개봉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일부 상영관에  
서 제한적으로 공개된 데 이어 본격적인 관객몰이에 나  
선다. 2월24일 영국, 3월 한국과 일본, 4월 독일·러시아·  
터키·네덜란드 등 지역으로 확대한다.

'미나리'는 1980년대 희망을 찾아 미국 아칸소로 이



영화 '미나리' 스틸 컷

민을 떠난 한국인 가족의 고단한 일상을 그린 영화. 지  
난해 미국 선댄스 영화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윤여정  
에게 현지 다양한 영화상의 여우조연상을, 작품에는  
작품상·각본상 등을 안기며 호평 받고 있다. 더욱이 버

라이어티 등 세계적인 영화전문지들이 올해 아카데미  
상 시상식의 주요 부문 유력 후보가 될 것임을 전망하  
고 있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 관객의 관심이 높아가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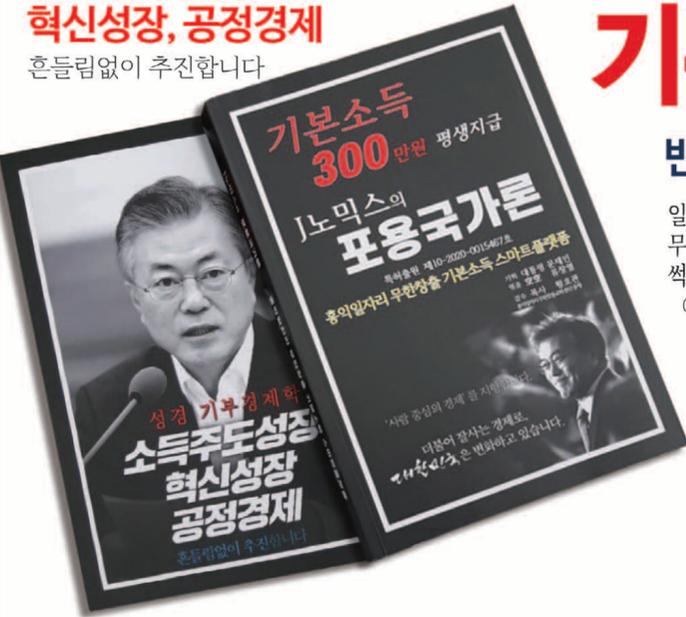
26일 '미나리'가 미국영화연구소(AFI)가 선정한 '2020  
올해의 영화' 10편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로이터통신은 "AFI의 '올해의 영화'는 오스카와 골든글  
로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영화를 가  
리키는 지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욕비평가협회상·크리스티프 초이스·배우  
조합 및 작가조합상 등 굵직굵직한 영화상 시상식이 이  
달 말부터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미나리'의 수상  
여부에도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미 윤여정과 작품이 다  
양한 수상 성과를 낸 만큼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또 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여수 기자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 등신 학부모야! /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계

###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경시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철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강명석 010-3274-5289
- 부산 김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수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우영환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최우환 010-3742-5998 / 선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시영희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덕 010-6258-3510 / 오명수 010-89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만 송원표 010-6717-1779 / 서도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찬석 010-4707-2659
- 원주 최현희 010-5177-9479 ● 여주 상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원만도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병도 010-6806-1931 / 노수필 010-5153-5983 ● 평강 고명철 010-5463-6952 ● 중국 충동우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화웨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